

#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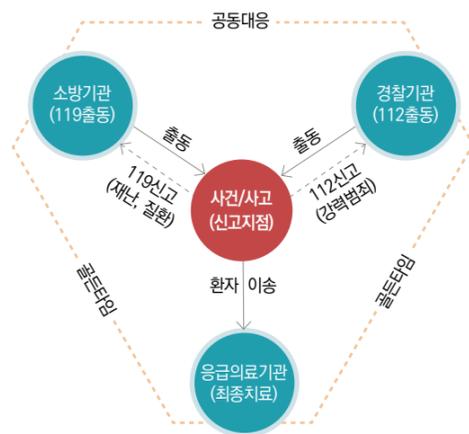
소방기관(소방서, 119구조대 등), 경찰기관(경찰청, 경찰서 등), 응급의료기관(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출동 가능하며, 119 및 112 출동으로부터 현장 구조 후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 구조의 전 과정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일컬음.

### ※ 골든타임 충족률 산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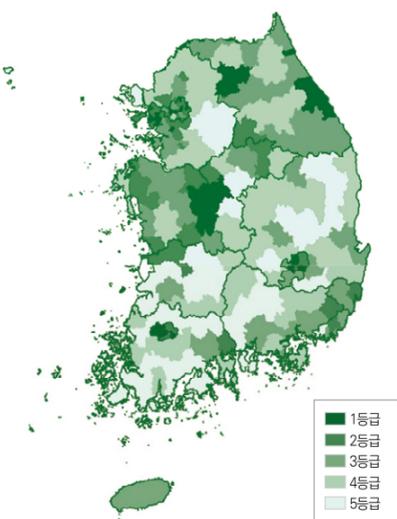
**119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소방서·119안전센터·119지역대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2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지구대·파출소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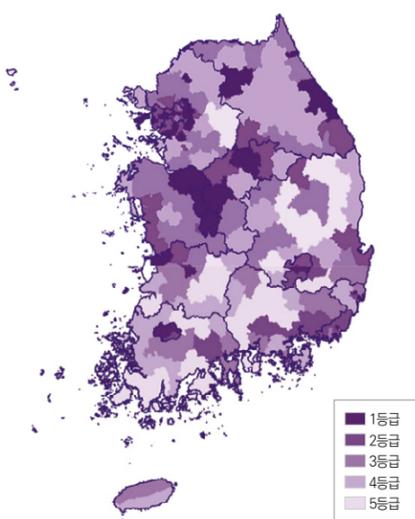
**병원 이송** | 지역별 총인구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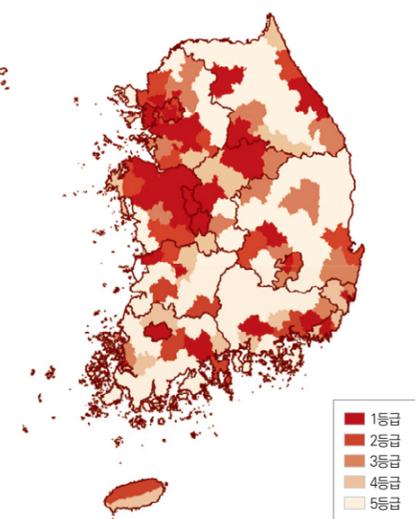
119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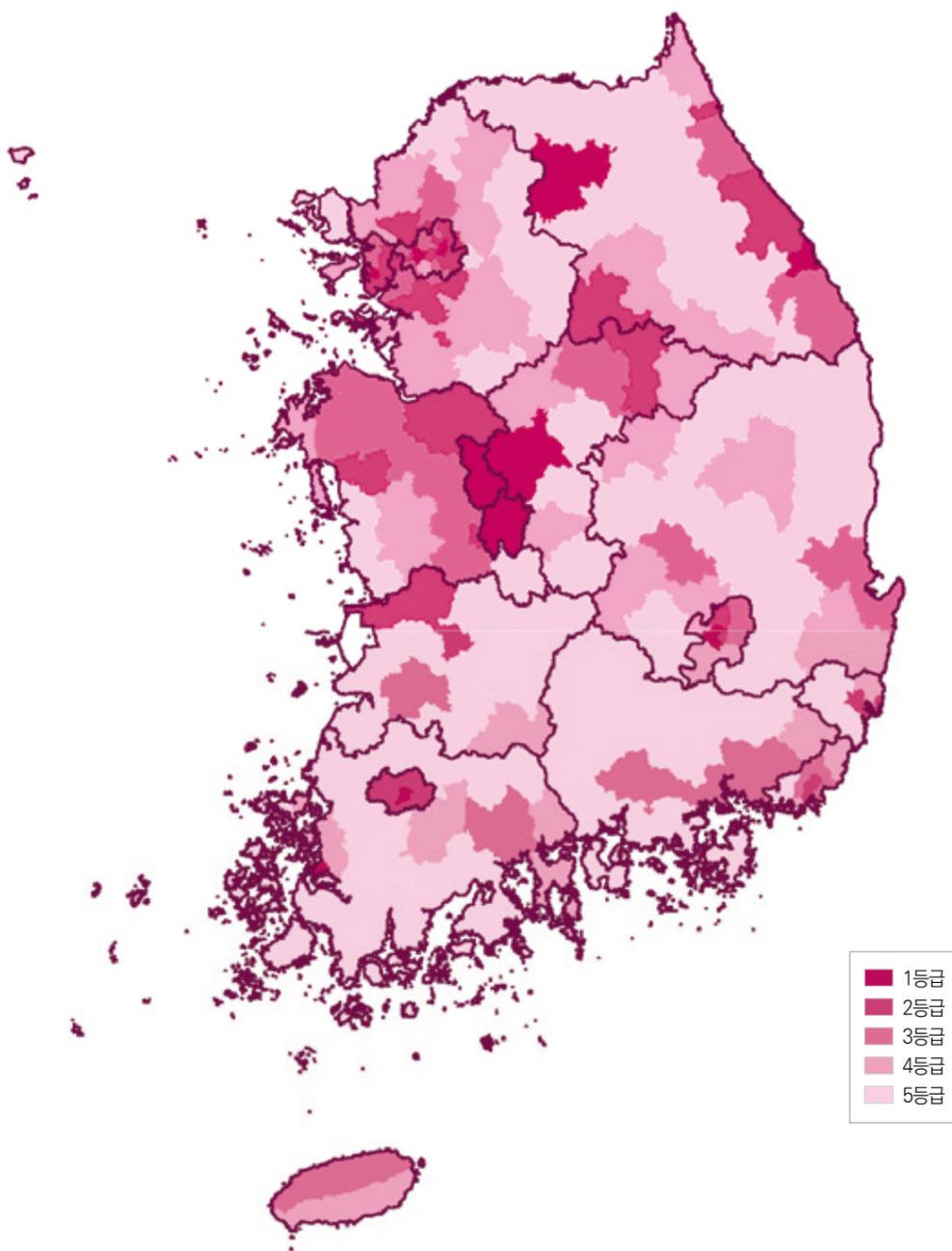
112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충족 가능성



229개 시군구 중 80개 지역의 위급상황(소방, 경찰, 응급의료) 대응수준이 매우 낮은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4등급인 곳도 38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전라북·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일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충족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표준화(2점수)한 후에 Jenks(1967)의 자연분류법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1등급에 가까울수록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한 모든 단계가 효과적으로 연계된 지역에 해당함.